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여대생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 조절된 매개효과*

김 은 하 김 현 준[†] 기 민 선
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에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딸이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모녀 202쌍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SP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딸이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딸이 모로부터 외모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수록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에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그리고 상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정적 신체이미지,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이상섭식행동,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연구의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2016년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에서 사용됨.

[†] 교신저자 : 김현준,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 031-219-3274, E-mail : sosimjerry@ajou.ac.kr

최근 외모지상주의와 더불어 외모를 가꾸는 행동들이 강조되면서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그리고 다이어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손은정, 2008). 특히 젊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체중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미혜, 류다영, 마득상(2005)의 연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을 과체중이라고 지각하고, 88%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며, 82%가 적어도 한번은 체중조절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 실시된 김미옥, 은종국, 장은재(2009)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여대생이 47.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실제 비만인 여대생은 4%에 불과하였다. 왜곡된 신체이미지가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날씬한 몸매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Gilbert & Meyer, 2005).

젊은 여성들의 외모불만족과 체중조절행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섭식장애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섭식장애를 진단받은 한국인이 늘고 있는데, 이 중 과반수가 10~2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10대와는 달리 식사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취업이나 결혼 등을 앞두고 체중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은하, 이신영, 2016). 실제로 섭식장애 환자 중 20대가 23.9%로 가장 많았고 20대 여성의 저체중 비율이 12.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자료, 2015).

이상섭식행동은 정상적인 섭식 행동의 범위

와 수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여러 유형의 비정상적인 섭식행동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이상섭식행동으로는 음식 섭취를 심하게 제한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행동,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먹는 음식을 토해내거나 이뇨제나 설사제를 사용하는 행동, 일부러 음식을 조금씩 먹거나 작게 잘라서 먹는 행동 등이 있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심각한 이상섭식행동은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섭식장애는 최소한의 정상체중을 거부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반복되는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보이는 신경성 폭식증, 폭식행동만이 지속되는 폭식 장애 등이 있다(정민, 2015). 섭식장애는 영양실조나 위궤양과 같은 의학적 합병증을 초래하고 우울장애, 약물사용장애 등의 공존장애를 동반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이상선, 오경자, 2004), 섭식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섭식장애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상섭식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상섭식행동이 20대 여성 중 여대생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정민, 2015).

일반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 완벽주의, 낮은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Polivy & Herman, 2002; 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부모애착,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미분화 등의 가족적 요인(김은하, 이신영, 2016) 그리고 마른 몸매와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체중에 대한 외부압력 및 대중매체의 영향 등의 사회적 요인(Phan & Tylka, 2006)이 이상섭식행동을 초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상섭식행동과 섭식장애는 다른 정신 병리와는 달리 가족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장애이기 때문에 부모, 친구, 대중매체의 영향이 부각되어 중요시되고 있다(조희경, 이정운, 2010).

이상섭식행동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모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oldenberg & Goldenberg, 2002). 특히 동성 부모는 자녀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는데, 가령, 딸은 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고, 만약 새로운 행동에 대해 모로부터 긍정적 강화를 받으면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Killeya-Jones, Costanzo, Malone, Quinlan, & Miller-Johnson, 2007). 이를 섭식행동과 체중 조절행동에 적용해 보면, 딸은 모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섭식행동이나 체중조절행동 등을 학습하게 된다(Field, Camargo, Taylor, Berkey, Roberts, & Colditz, 2001; Holtom-Viesel & Allan, 2014). 또한 딸은 모로부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배우기 때문에 모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딸의 신체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Haworth-Hoeppner, 2000).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이 되어서도 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우수희, 송근혜, 조규판, 2012), 이들의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모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Aquilino & Supple, 2001).

실제로 여러 경험 연구에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가령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신체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상섭식행동을 보이

는 딸의 모도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Keery, Boutelle, van den Berg, & Thompson, 2005; Smolka, Levine, & Schermer, 1999). 특히 딸이 사춘기를 지나도 부모로부터의 독립하지 못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자녀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ninghoven, Tesch, Kunzendorf, & Jantschek, 2007).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상(mental image)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감정을 의미한다(강여주, 이광호, 2007).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객체(Object)'로 인식하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를 통해 자기 신체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판단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수치심이나 불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Muehlenkamp, Swanson, & Brausch, 2005). 따라서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낮은 자존감과 신체 불만족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이상섭식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Shaw, Stice, & Springer, 2004; Polivy & Herman, 2002).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연구의 결과로, Stice, Presnell과 Spangler(2002)는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폭식과 과도한 체중조절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고, Carter, Blackmore, Sutanada-Pinnock 그리고 Woodside(2004)는 섭식장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섭식장애 재발률은 그들의 신체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인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딸의

신체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의 신체이미지가 딸의 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Attie와 Brooks-Gunn(1989)의 연구에서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자녀의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Ogden과 Elder(200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자녀의 섭식행동이나 다이어트 횟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Fulkerson, McGuire, Neumark-Stainer, Story, French 그리고 Perry (2002)의 연구와 McKinley(1999)의 연구에서도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자녀의 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Byely, Archibald, Graber, 그리고 Brooks-Gunn(2000)가 실시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지만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지 않으며,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 두 변인을 잇는 심리적 기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진 모든 여성이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이 두 변인간의 관계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onley(2004)의 연구에서는 모가 외모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하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하게, Baker, Whisman, 그리고 Brownell(2000)의 연구에서는 모가 딸의 체중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권장하면,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진 딸의 경우, 섭식 통제 행동이나 거식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섭식장애 환자의 30% 이상이 모의 다이어트 권유로 식사량을 절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부모로부터 외모와 관련하여 놀림을 받은 딸이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chwartz, Phares, Tantleff-Dunn & Thompson, 1999).

관련하여, 모가 딸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할수록,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및 체중조절 경험이 딸의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oley, Toray, Wang, & Valdez, 2008; Kluck, 2010; Garbett & Diedrichs, 2016). 즉, 모의 외모나 체형에 대한 모델링 효과는 모가 딸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높아진다는 것이다(Kichler & Crowther, 2001). 이러한 모의 부정적 피드백은 또래의 부정적 피드백에 비해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며(Fairburn, Welch, Doll, Davies, & O'connor, 1997), 모가 보고한 자신의 피드백 수준 보다는 딸이 지각하는 모의 피드백 수준이 딸의 섭식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r, Whisman, & Brownell, 2000).

이와 반대로, 모의 긍정적 피드백은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Gross와 Nelson(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자란 딸은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모의 메시지가 아버지의 메시지보다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 신체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와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거나 모로부터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면, 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와 감정 조절 전략을 학습하여 이상섭식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triegel-Moore & Cachelin, 1999). 또한, 모의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은 딸의 통합적인 자아상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진 딸이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체중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Vey, Pepler, Davis, Flett, & Abdoell, 2002). 이러한 연구들은 모의 외모에 대한 피드백이 모가 딸의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모의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정신역동적 이론을 토대로 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Cooley et al., 2010). 먼저, Bowlby의 애착이론(Bowlby, 1988)을 적용한 해석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가 딸에게 외모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하면, 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 표상, 즉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Squires, Lalanne, Murday, Simoglou, & Vaivre-Douret, 2014). 특히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하는 모는 엄격하고, 통제적이며,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Haworth-Hoepfner, 2000), 딸로 하여금 ‘안전한 느낌’ 혹은 ‘지지받고 있는 느낌’을 경험할 수 없게 하고, 이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불안정 애착은 섭식장애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Gilbert & Procter, 2006; Neff & McGehee, 2010)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Abbate-Daga, Gramaglia,

Amianto, Marzola & Fassino, 2010)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정의되는 이상적인 외모와 체형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Greenwood, Pietromonaco, & Long, 2008). 둘째,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나 외모를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러한 노력이 심각해지면 이상섭식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또한 불안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 및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Milulincer & Shaver, 2007), 이상섭식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김은하, 이신영, 2016; Lavender & Anderson, 2010).

애착이론과 더불어 다른 연구자들도 모의 부정적 피드백이 딸의 이상섭식행동과 관련이 있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Birsch, Fisher, 그리고 Davison(2003)은 모로부터 외모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자란 딸은 음식에 대한 양가적 감정(예. 갈망 vs.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음식섭취와 억제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져 이상섭식행동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하는 모는 딸의 섭식행동을 통제하거나 간섭하기 때문에, 자녀의 청소년기 분리-개별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Conley, 2004). 이로 인해 자녀는 명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보다 다른 몸매에 대한 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게 되어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공성숙, 현명선, 2002). 특히 모의 과잉개입이나 통제는 딸로 하여금 적절한 식사 습관이나 체중조절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

게 하여 이상섭식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신체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이상섭식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딸이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피드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한 딸이라도 모의 부정적 피드백이 없으면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모녀 쌍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를 딸이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조절하는지 규명하였다. 즉, 그림 1과 같이,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모의 부정적 피드백이 조절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 모의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효과, 이 둘의 효과를 합친 매개된 조절효과를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매개할 것이다(매개효과). 둘째,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조절할 것이다(조절효과). 셋째,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장애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조절할 것이다(매개된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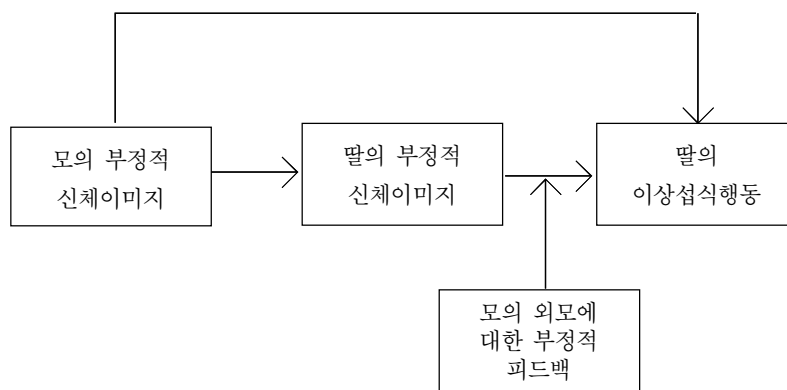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혹은 교육학 수업을 수강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자는 288명의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학생 설문지와 모 설문지를 함께 배부하였다. 여대생과 모의 쌍으로 수거된 설문지는 224부였고, 41부는 학생 설문지만 수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24쌍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정보가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202쌍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 설문지를 제출한 학생($n=202$)과 그렇지 않은 학생($n=41$)간에,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t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규정에 따라,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과 모만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설문에 걸린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다.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모의 경우 50.11($SD=6.21$)세, 여대생은 21.47($SD=3.12$)세였다. 참여자의 자세한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딸 설문지는 부정적 신체이미지,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는 도구가 포함되었고, 모 설문지는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만 포함되었다.

부정적 신체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딸과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Brown, Cash, 그리고 Mkulka(1990)가 개발하고 고애란과 조선명(2001)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 RQ)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여러 하위 척도 중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모평가(5문항)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측정하며, 신체만족도(5문항)는 신체의 여러 부분(예, 얼굴, 하체, 상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김은하와 이신영(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모 자료의 경우 .86, 딸 자료의 경우 .87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나의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신체적으로 매력이 없다’가 있다.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본 연구에서는 딸이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Tantleff-Dunn, Thompson 그리고 Dunn(1995)이 개발하고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안한 외모에 대한 피드백 척도(Feedback on Physical Appeara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원 문항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8살~18살이었을 때 ‘어떤 사람’(‘someone’)이 자신의 의상, 체중, 몸매에 대해 얼마나 자주 부정적으로 말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섭식량을 통제하거나 체중조절을 권장

표 1.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변인	N	%		
모	직업	전업주부	16	7.9	
		전문직	134	66.3	
		자영업	18	8.9	
		기타	34	16.9	
	학년	1학년	31	15.3	
		2학년	51	25.2	
		3학년	82	40.6	
		4학년	38	18.9	
	거주상태	부모와 동거	125	61.85	
		모와만 동거	20	10.0	
		자취 혹은 기숙사	57	28.2	
여대생	키	150~155cm	31	15.3	
		155~160cm	54	26.7	
		160~165cm	74	36.6	
		165~170cm	43	21.3	
	체중	45kg이하	20	9.9	
		45~48kg	35	17.3	
		49~52kg	54	26.7	
		53~56kg	50	24.8	
		57~60kg	25	12.4	
		61~64kg	12	5.9	
		65~70kg	4	2	
		71kg 이상	2	1	
		체질량지수(BMI)	저체중(BMI 18.5미만)	26	12.9
			정상체중(BMI 18.5~24.9)	151	74.7
과체중(BMI 25~29.9)	21		10.4		
미만(BMI 30 이상)	4		.2		

했는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부정적 피드백을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서 ‘어떤 사람’을 ‘어머니’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없었다, 5점=거의 언제나)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딸이 모로부터 외모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Herbozo(2004)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어머니는 나에게 체중이 늘었는지 물어봤다,’ ‘어머니가 내 몸을 보면서 인상을 썼다,’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먹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 ‘어머니는 나에게 “돼지”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내가 살찐다고 디저트나 간식을 주지 않았다’가 있다.

이상섭식행동

본 연구에서는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하고 이민규 등(1988)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단축형 식사태도 검사(Eating Attitudes Test-26; EAT-2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날씬함에 대한 집착과 식이 조절, 신경성 폭식증과 음식에 대한 집착, 자기 의지로 인한 식사 조절 여부 등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별 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6점=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와 ‘억제할 수 없이 폭식을 한 적이 있다’가

있다.

자료 분석

먼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가상적 무선 표본을 만들어 매개(혹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된 Sobel 테스트보다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hrout & Bolger, 2002). 다음으로, 딸이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평균중심화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상관관계,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모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현재 키나 몸무게에 따라 이상섭식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

표 2.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1	2	3	4
1.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	.20**	.06	.16*
2.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	.11	.32***
3.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	.43***
4. 딸의 이상섭식행동				-
<i>M</i>	18.11	24.21	16.82	67.48
<i>SD</i>	6.70	5.51	6.22	14.32

* $p < .05$, ** $p < .01$, *** $p < .001$

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딸의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과 딸의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 분석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에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통제된 상태에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에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매개(혹은 간접) 효과 계수에 대한 95%

표 3.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

단계	경로	β	t	R^2
1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22	10.85*	.20
2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 딸의 이상섭식행동	1.25	4.82***	.32
3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 딸의 이상섭식행동	.43	1.47	.16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 딸의 이상섭식행동	1.17	4.44***	

* $p < .05$, *** $p < .001$

표 4.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Bootstrapping효과

	매개효과 계수	Boot S. 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딸의 이상섭식행동	.26	.12	.08	.57

신뢰구간을 산출 하는데, 이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reacher & Hayes, 2004).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 값이 각각 .08과 .57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신체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상섭식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효과 분석

다음으로,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안한대

로, 매개모형 검증 이후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독립변인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모의 피드백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² 변화량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 효과

단계		b	S.E.	β	t
1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3.85	.82	.27	4.67***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7.15	.82	.50	8.68***
R ² = .35***					
2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3.33	.84	.23	3.94***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7.11	.81	.50	8.73***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X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2.12	.91	.14	2.32*
ΔR ² = .02*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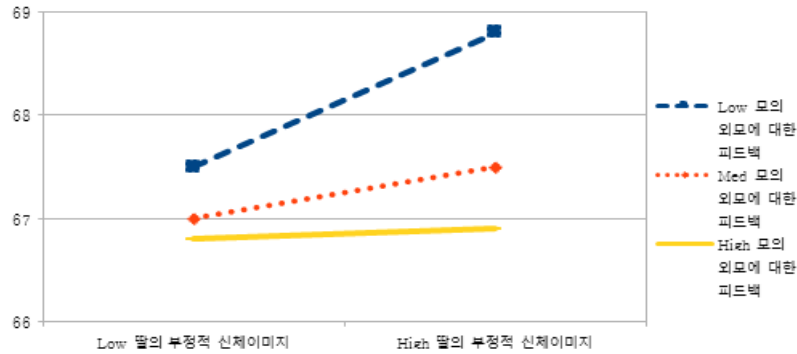


그림 2.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호작용효과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체집단을 모의 부정적 피드백 수준이 낮은(평균에서 표준편차 -1) 집단, 평균, 높은(평균에서 표준편차 +1) 집단으로 구분한 후,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의 부정적 피드백이 낮은 집단의 경우,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18, p>.05$). 이에 반해, 모의 부정적 피드백이 평균이거나 높은 집단의 경우,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38, p<.01; r=.59, p<.01$). 즉,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낮으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평균이거나 높으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앞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인 모의 외모에 대한 피드백의 평균 값±1SD에 따라 자료를 세 그룹(저, 중, 고)으로 나누고, 각 그룹마다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Bootstrapping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모의 부정적인 피드백수준이 적은 집단의 경우,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 값이 각각 -.10과 .35로 0을 포함한 반면에, 모의 부정적 피드백 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에서는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상한 값이 각각 .05와 .44, 그리고 .10과 .61로 0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부정적인 피드백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지만,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에서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즉,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딸의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종속변인: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종속변인: 딸의 이상섭식행동		
	b	S.E.	t	b	S.E.	t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22	.08	2.93**	.29	.25	1.19*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85	.23	3.68*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1.14	.13	8.68***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 X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09	.04	2.21*

조절변인	수준	종속변인: 딸의 이상섭식행동			
		간접효과 상관계수	Boot S. 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저	.07	.11	-.10	.35
	중	.19	.09	.05	.44
	고	.31	.13	.10	.61

* $p < .05$ ** $p < .01$ *** $p < .001$

신체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이상섭식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의 부정적인 피드백 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2명의 여대생과 여대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딸의 신체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이상섭식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Field 등(2001)의 연구와 Benninghoven(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가진 모는 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불안이 높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딸의 불안정애착을 야기하고, 이러한 불안정애착은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Kenny, Griffiths, & Grossman, 2005; Song, Thompson, & Ferrer, 2009),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연관성은 사회학습이론과 결부시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모는 딸의 핵심 모델이기 때문에(Killeya-Jones et al., 2007), 딸은 모로부터 이상적인 여성상과 신체상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딸은 신체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모로부터 날씬한 몸매가 이상적인 여성상이며 날씬한 몸매가 성공과 애정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학습할 수 있어,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Francis & Birch, 2005).

또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자신의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변인의 연관성을 밝힌 선행연구들(Shaw, Stice, & Springer, 2004; Polivy & Herman, 2002)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상섭식행동치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지행동이론에서도 이 두 변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인지행동이론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왜곡된 지각을 보이는데(김은하, 이신영, 2016), 특히 자신의 실제적 몸매와 이상적 몸매 사이에서 심한 괴리감을 느끼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상섭식행동을 보인다(Fairburn, Cooper, & Shafran, 2002). 또한 날씬한 몸매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높는데, 예를 들어, 취업에 실패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뚱뚱한 몸매로 귀인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려

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Grilo, 2013). 이와 비슷하게, 폭식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몸매에 대해 왜곡되게 지각하고 자기 비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신혜, 조용래, 2014) 섭식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상섭식행동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결과는 모의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Usmiani와 Daniluk(1997)와 Pike와 Rodin(1991)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Attie & Brooks-Gunn, 1989; Byely, Archibald, Graber, Brooks, & Gunn, 2000; Fulkerson, McGuire, & Neumark-Stainer, 2002).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은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을 발달시키는데 직접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둘의 관계를 잇는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딸의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의 신체이미지가 딸의 이상섭식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딸의 신체이미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 행동간의 관계에서 딸이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수준

이 낮을 때는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높은 여대생 집단과 낮은 여대생 집단의 이상섭식행동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수준이 높을 때는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이상섭식행동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수준이 높아질수록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딸이 지각하는 모의 부정적 피드백이 딸의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Conley, 2004; Schwartz, Phares, Tantleff-Dunn & Thompson, 1999), 특히, Benedikt, Wertheim, Love(1998)의 연구에서도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딸의 신체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모가 자녀의 섭식행동이나 체중 조절에 개입할수록 자녀는 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착한 딸’로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노력은 과도한 외모관리나 섭식제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Tiggemann & Lowes, 2002; Vincent & McCabe, 2000). 이와 더불어,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은 신체를 ‘객체’(object)로 인식하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의 이상섭식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Lavin & Cash, 2000). 다시 말해, 모로부터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딸은 자신의 신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신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이로 인해 이상섭식행동에 취약하다는 것이다(Ata, Ludden, & Lally, 2007). 이와 반대로, 모의 부정적 피드백을 적

게 받은 딸은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날씬한 몸매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지각하기 때문에 이상섭식행동과 같은 역기능적 체중 조절 행동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Conley, 2004).

또한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 효과는 정신역동적 접근을 토대로 해석할 수 있다.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이상섭식행동이나 섭식장애를 내사(introjection)와 반전(retroflexion)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로 개념화하는데, 가령, 섭식장애 내담자는 부모나 사회의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는 내사의 경향성을 가진다. 따라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한 딸의 경우, 모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체중조절을 권장한다고 지각하면, 이를 내사하여 과도하게 날씬한 몸매를 지향하면서 절식을 하거나 이러한 절식에 대한 반동으로 강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겨 폭식행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게 되고, 타인에게 하고 싶은 행동이나 타인이 자기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자신에게 하게 되는데. 이를 반전이라 한다. 이러한 반전은 죄책감, 공허감, 우울증과 같은 부정 정서를 야기하는데, 이상섭식행동은 이러한 부정 정서를 단기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Fairburn, Cooper, & Shafran, 2002; Winston, 2005).

셋째,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딸의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에서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매개효과를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조절한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모와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일 때 이상섭식행동의 정도가 높은 여대생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지각하는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즉, 성장하면서 모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는 여대생은 모의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여 이상섭식행동에 취약하지만,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적었다고 지각하는 여대생은 모의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신체이미지가 부정적이더라도 이상섭식행동에 덜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조절효과는 여대생의 모가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보이더라도 자녀에게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녀의 이상섭식행동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사고의 수정을 강조하는 인지치료와 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과 개별화를 강조하는 정신역동적 접근을 접목한 상담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 이상섭식행동과 섭식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접근 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는 점(Fairburn et al., 2009; Kiang & Harter, 2006)을 고려할 때, 인지치료와 정신역동적 접근을 토대로 한 통합적인 접근이 여대생의 이상섭식행동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한 내담자의 경우, 인지치료를 통해 부정적 신체이미지를 수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인지기법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모로부터 받은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태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도록 격려하고(김정욱, 2000). 심상을 통한 신체적 둔감화, 자신의 몸매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기법 등을 사용하여 적응적인 자신만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Brown, Mountford, & Waller, 2013; Byrne, Cooper, & Fairburn, 2004; Hilbert & Tuschen-Caffier, 2004).

인지치료와 더불어 정신역동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상섭식행동을 보이는 여대생 내담자의 경우,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내사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므로, 상담관계에서 나타나는 방어와 전이(예. 퇴행, 억압, 투사적 동일시, 분열)를 탐색함으로써 모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분리하는 작업이나 섭식에 대한 자신의 내적 갈등을 다룸으로써, 내사된 신체상이나 섭식에 대한 가치관을 의식화하고,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지금-여기’에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욕구와 감정에 초점을 두는 개입(예.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한숨을 자주 쉬는데, 그 한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느끼는 그 감정에 머물러보세요’)을 통해 내담자가 이상섭식행동을 통해 회피해온 자신의 부분들과 접촉하고 궁극적으로 몸매나 체중에 대해 자기 스스로 타당한 기준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모로부터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내담자의 경우, 모가 섭식행동이나 체중 조절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Field et al., 2001; Killea-Jones et al., 2007) 올바른 섭식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교육 및 영양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건강하고 균형적인 섭식행동을 학습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이상섭식행동이 섭식장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일부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과 그의 모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연구대상을 표집하거나 섭식장애로 진단받은 임상집단을 표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횡단자료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섭식장애의 하위유형들이 다른 증상을 동반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이들을 예측하는 요인(예. 가족의 영향, 부정적 신체이미지)이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Favaro, Ferrara, & Santonastaso, 2003).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모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이상섭식행동의 하위유형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모녀관계를 측정하지 않았는데, 선행 연구에서 모의 신체이미지나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딸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녀관계의 질 그리고 모와의 애착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Milan & Acker, 2014),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시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

백의 상호작용이 딸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그 설명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2$). 이러한 결과는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변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후속 연구에서는 모의 섭식행동, 애착, 모녀관계의 질 등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모의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모가 주양육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Kim, Lee, & Kim, 2014) 모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최근에 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의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 외에도 또래, 연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인(예. 미디어의 영향)이 딸의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대생의 섭식장애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들이 향후 딸을 가진 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가 딸의 신체이미지와 섭식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한 세대에 국한되어 실시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모녀쌍을 대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모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의 고유한 역할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임상적 차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여대생 내담자들은 장기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모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 신체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과거에 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합리적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이상섭식행동을 예방 혹은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여주, 이광호 (2007). 직업 무용수의 신체이미지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15(3), 257-271.
- 고애란, 조선명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공성숙, 현명선 (2002). 섭식장애 환자의 모녀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1(2), 249-259.
- 국민건강보험자료 (2015. 2. 29). "폭식증" 환자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아.
- 김미옥, 은종국, 장은재 (2009). 여대생들의 체중에 대한 인식과 신체 부위별 만족도.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2(2), 205-214.
- 김은하, 이신영 (2016). 여자대학(원)생의 자아분화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한 심리적 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181-204.
- 김정규 (2015). 계슈탈트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김정욱 (2000). 섭식장애. 서울: 학지사.
- 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여대생의 절식 및 폭식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73-91.
- 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신체에 대한 수치심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63-679.
- 성미혜, 류다영, 마득상 (2005). 여대생의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8(1), 71-82.
- 손은정 (2011). 완벽주의, 자기비난, 자기의식, 신체불만족 및 신경성 폭식증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165-183.
- 우수희, 송근혜, 조규관 (2012).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59-80.
- 이민규, 이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1998). 한국판 식사 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KEAT-26) 표준화 연구 1: 신뢰도 및 요인 분석. 정신신체의학, 6(2), 156-175.
- 이상선, 오경자 (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23(1), 91-106.
- 이신혜, 조용래 (2014). 자기 자비의 부족이 여자 청소년의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 신체불만족, 섭식절제 및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103-121.
- 정민 (201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지역 여대생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신체자본성,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지역사회연구, 23(2), 165-182.
- 조희경, 이정운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여자 청소년의 이상섭식행동의

- 관계: 신체비교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8(1), 43-58.
- Abbate-Daga, G., Gramaglia, C., Amianto, F., Marzola, E., & Fassino, S. (2010). Attachment insecurity, personality,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98, 520-524.
- Aquilino, W. S., & Supple. A. (2001). Long-term effects of parenting practices during adolescence on well-being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22, 289-308.
- Ata, R. N., Ludden, A. B., & Lally, M. M. (2007). Effects of gender and family, friend, and media influences on eating behaviors and body imag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1024-1037.
- Attie, A., & Brooks-Gunn, J. (1989). Development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girl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0-79.
- Baker, C. W., Whisman, M. A., & Brownell, K. D. (2000). Study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ating attitudes and behaviors: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questions. *Health Psychology*, 19, 376 - 38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nedikt, R., Wertheim, E. H., Love, A. (1998). Eating attitudes and weight-loss attempts in female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43-57.
- Benninghoven, D., Tesch, N., Kunzendorf, S., & Jantschek, G. (2007). Body image in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and their mothers, and the role of family functioning. *Comprehensive Psychiatry*, 48, 118-123.
- Birsch, L. L., Fisher, J. O., & Davison, K. K. (2003). Learning to overeat: Maternal use of restrictive feeding practices promotes girls' eating in the absence of hunger.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78, 215-220.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wn, T. A., Cash, T. F., & Mikulka, P. J. (1990). Attitudinal body-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135-144.
- Brown, A., Mountford, V., & Waller, G. (2013). Therapeutic alliance and weight gain during cognitive-behaviour therapy for anorexia nervos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1, 216-220.
- Byely, L., Archibald, A. B., Graber, J., & Brooks-Gunn, J. (2000). A prospective study of familial and social influences on girls' body image and die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8, 155-164.
- Byrne, S. M., Cooper, Z., & Fairburn, C. G. (2004). Psychological predictors of weight regain in obesi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1341-1356.
- Carter, J. C., Blackmore, E., Sutanada-Pinnock, K., & Woodside, D. B. (2004). Relapse

- in anorexia nervosa: A survival analysis. *Psychological Medicine*, 34, 671-679.
- Conley, A. R., (2004). Positive feedback on appearance, value placed on appearance, and need for disordered eating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females. *Honors Projects*, PAGE 27.
- Cooley, E., Toray, T., Wang, M. C., & Valdez, N. N. (2008). Maternal effects on daughters' eating pathology and body image. *Eating Behaviors*, 9, 52-61.
- Fairburn, C. G., Welch, S. L., Doll, H. A., Davies, B. A., & O'connor, M. E. (1997). Risk factors for bulimia nervosa. A community-based case-control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4, 509-517.
- Fairburn, C. G., Cooper, Z., Doll, H. A., O'Connor, M. E., Bohn, K., Hawker, D. M., Wales, J. A., & Palmer, R. L. (2009). Transdiagnostic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A two-site trial with 60-week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6, 311-319.
- Favaro, A., Ferrara, S., & Santonastaso, P. (2003). The spectrum of eating disorders in young women: A prevalence study in general population sample. *Psychosomatic Medicine*, 65, 701-708.
- Field, A. E., Camargo, C. A., Taylor, C. B., Berkey, C. S., Roberts, S. B., & Colditz, G. A. (2001). Peer, parent, and media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weight concerns and frequent dieting among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girls and boys. *Pediatrics*, 107, 54-60.
- Francis, L. A., & Birch, L. L. (2005). Maternal influences on daughters' restrained eating behavior. *Health Psychology*, 24, 548-554.
- Fulkerson, J. A., McGuire, M. T., Neumark-Stainer, D., Story, M., French, S. A., & Perry, C. L. (2002). Weight-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s of adolescent boys and girls who are encouraged to diet by their m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6, 1579-1587.
- Garbett, K. M., Diedrichs, P. C. (2016). Improving uptake and engagement with child body image interventions delivered to mothers: Understanding mother and daughter preferences for intervention content. *Body Image*, 19, 24-27.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 273-279.
- Gilbert, N., & Meyer, C. (2005).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eating attitud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tudy.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7, 360-363.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criticism: A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 353-379.
- Goldenberg, H., & Goldenberg, I. (2002). *Counseling today's families* (4th ed.). Pacific Grove, CA: Thomson Brooks/Cole.
- Greenwood, D., Pietromonaco, P. R., & Long, C. R. (2008). Young women's attachment style and interpersonal engagement with female TV sta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 25, 387-407.
- Grilo, C. M. (2013). Why do cognitive body image feature such as overvaluation of shape/weight in the binge eating disorder diagno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46*, 208-211.
- Gross, R. M., & Nelson, E. S. (2000). Perceptions of parental messages regarding eating and weight and their impact on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5*, 57-78.
- Haworth-Hoepfner, S. (2000). The critical shapes of body image: The role of culture and family in the production of eating disord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212-227.
- Herbozo, S.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erbal commentary on physical appearance scale*.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Hilbert, A., & Tuschen-Caffier, B. (2004). Body image interventions in cognitive-behavioural therapy of binge-eating disorder; A component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1325-1339.
- Holtom-Viesel, A., & Allan, S. (2014).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family functioning across all eating disorder diagnoses in comparison to control famil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 29-43.
- Kenny, M. E., Griffiths, J., & Grossman, J. (2005). Self-image and parental attachment among late adolescents in Belize. *Journal of Adolescence, 28*, 649-664.
- Keery, H., Boutelle, K., Van den Berg, P., & Thompson, J. K. (2005). The impact of appearance-related teasing by family members. *The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37*, 120-127.
- Kichler, J. C., & Crowther, J. H. (2001). Young girls' eating attitudes and body image dissatisfaction: Associations with communication and modeling.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 212-232.
- Killea-Jones, L., Costanzo, P., Malone, P., Quinlan, N., & Miller-Johnson, S. (2007). Norm-narrowing and self- and other perceived aggression in early-adolescent same-sex and mixed-sex cliqu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549-565.
- Kim, E. H., Lee, E., & Kim, T. H. (2014). A pathway to self-esteem: The direct/indirect influence of attachment to others, fathers, and peers. *Journal of Human Studies, 33*, 219-236.
- King, L., & Harter, S. (2006). Sociocultural values of appearance and attachment processes: An integrated model of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ating Behaviors, 7*, 134-151.
- Kluck, A. S. (2010). Family influence on disordered eating: The role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Body Image, 7*, 8-12.
- Lavender, J. M., & Anderson, D. A. (2010). Contribution of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to disordered eating and body dissatisfaction in college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3*, 352-357.
- Lavin, M. A., & Cash, T. F. (2000). Effects of exposure to information about appearan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on women's body i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 51-58.
- McKinley, N. M. (1999). Women and objectified

- body consciousness: Mothers' and daughters' body experience in cultural, developmental, and family context. *Developmental Psychology*, 35, 760-769.
- McVey, G. L., Pepler, D., Davis, R., Flett, G., & Abdollell, M. (200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disordered eating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 76-96.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psychopathology. *World Psychiatry*, 11, 11-15.
- Milan, S., & Acker, J. C. (2014). Early attachment quality moderates eating disorder risk among adolescent girls. *Psychology & Health*, 29, 896-914.
- Muehlenkamp, J. J., Swanson, J. D., & Brausch, A. M. (2005). Self-objectification, risk taking, and self-harm i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24-32.
- Neff, K. D., & McGeehee, P. (2010).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lf and Identity*, 9, 225-240.
- Ogden, J., & Elder, C. (2000). The role of family status and ethnic group on body image and eating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 309-315.
- Pike, K. M., & Rodin, J. (1991). Mothers, daughters,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98-204.
- Phan, T., & Tylka, T. L. (2006). Exploring a model and moderators of disordered eating with Asi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36-47.
- Polivy, J., & Herman, C. P. (2002). Causes of eating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87-213.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Schwartz, D. J., Phares, V., Tantleff-Dunn, S., & Thompson, J. K. (1999). Body image,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parental feedback regarding physical appea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5, 339-343.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73-91.
- Shaw, H. E., Stice, E., & Springer, D. W. (2004). Perfectionism, body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predicting bulimic symptomatology: Lack of re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6, 41-4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molak, L., Levine, M. P., Schermer, F. (1999). Parental input and weight concern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 of *Eating Disorders*, 25, 263-271.
- Song, H., Thompson, R. A., & Ferrer, E. (2009). Attachment and self-evaluation in Chinese adolescence: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32, 1267-1286.
- Squires, C., Lalanne, C., Murday, N., Simoglou, V., & Vaivre-Douret, L. (2014). The influence of eating disorders on mothers' sensitivity and adaptation during feeding: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4, 14-274.
- Stice, E., Presnell, K., & Spangler, D. (2002). Risk factors for binge eating onset in adolescent girls: A 2-year prospective investigation. *Health Psychology*, 21, 131-138.
- Striegel-Moore, R. H., & Cachelin, F. M. (1999). Body image concerns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 girl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N. G. Johnson, M. C. Roberts, & J. Worell (Eds.), *Beyond appearance: A new look at adolescent girls* (pp. 85-10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ntleff-Dunn, S., Thompson, J. K., & Dunn, M. F.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eedback on Physical Appearance Scale (FOPAS). *Eating Disorders: Journal of Treatment and Prevention*, 3, 341-350.
- Tiggemann, M., & Lowes, J. (2002). Predictors of maternal control over children's eating behavior. *Appetite*, 39, 1-7.
- Usmiani, S., & Daniluk, J. (1997).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daughter: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gender role identity, body im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45-62.
- Vincent, M. A., & McCabe, M. P. (2000). Gender differences among adolescents in family, and peer influences on body dissatisfaction, weight loss, and binge eating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205-221.
- Winston, A. P. (2005). Projection, introjection, and identity in anorexia nervosa.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21, 389-399.
- 1차원고접수 : 2016. 10. 21.
심사통과접수 : 2016. 12. 20.
최종원고접수 : 2016. 12. 24.

The effects of maternal negative body image and negative feedback on appearance on abnormal eating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Moderated mediational effect

Kim, Eunha Kim, Hyunjun Ki, Minsun
Ajou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aughters' negative body imag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negative body image and daughters'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if such mediating effect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daughters' perceived level of maternal negative feedback on appearance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 total sample of 202 mother-daughter pai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Macro.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aughters' negative body image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negative body image and daughters' abnormal eating behaviors. Second, daughter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negative feedback on appearance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aughters' negative body image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That is, as the frequency of maternal negative feedback on appearance increased, the relationship between daughters' negative body image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increased. Third, the moderated mediating model was supported in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daughters' negative body imag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negative body image and daughters' abnormal eating behaviors increased as maternal negative feedback increased.

Key words : *Negative Body Image, Maternal Negative Feedback on Appearance, Abnormal Eating Behaviors, Moderated mediational effect*